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Frontier

KAIST Management Update



CONTENTS

2	나침반 박성주 테크노경영대학원장	12~17	특집: (윤리경영) 또 하나의 글로벌 스탠다드 - 우리나라 윤리경영의 현주소 - 해외 윤리경영 사례 - 해외 경영대학의 윤리교육 - 테크노경영대학원의 윤리교육	21	테크노가족 II 노태석 KT부산본부 본부장	테크노경영대학원 계간지 Frontier 2002 SUMMER Vol. 6 No.3 (통권20호)
3	특별기고 이종문(KAIST 명예석좌교수, AMBEX 회장)	18	1년 간의 세계여행, 그 이후 설운성(테크노경영 MBA)	22	국무총리상 수상자 인터뷰 유천부 박사, 전수환 박사과정	발행일 2002년 7월 20일
4~5	테크노경영대학원 뉴스	19	학교생활수기 박노진(환경경영/정책 MBA)	23	문단 민경진(테크노경영MBA)	발행인 박성주
6	International Center	20	테크노가족 I 원 없이 공부한 KAIST MBA 동문들	24~25	Executive Program News	편집인 이재규
7	테크노경영대학원 초대학생회 출범			26	테크노경영대학원 커피이야기	발행처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8~10	특별보고서 조연주(MBA Director/교수)			27	테크노인/신간 소개 - 이인팔(테크노경영MBA) - '생산전략과 기술경영'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207-43 TEL (02) 958-3246 FAX (02) 958-3010
11	서울시 건축상 수상 SUPEX경영관					디자인 경희디자인 (02) 2263-7534

2003 학년도 KAIST-MBA로 유학오십시오!

한국과학기술원 테크노경영대학원(KAIST Graduate School of Management)은
범세계적인 시야를 가지고 21세기를 이끌어 갈 '기술을 아는 경영인, 경영을 아는 기술인'을 양성하는
국제 수준의 경영대학원입니다. 본 대학원의 MBA과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03학년도 입학전형 내용 및 일정

내 용	일 정
원서교부	2002. 11. 4(월) - 11.11(월)
원서접수	2002. 11. 13(수) - 11. 16(토)
TOEFL(ITP)시험	2002. 11. 22(금)
제1차 합격자 발표	2002. 12. 4(수)
면접시험	2002. 12. 9(월) - 12. 11(수)
최종합격자 발표	2002. 12. 17(화)

- 입학시험성적 우수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 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업체에서 교육경비를 부담하는 학생은 해당기업의 입학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 문의: (02)958-3214, 3216

모집전공 및 학위 (서울 홍릉캠퍼스)

■ MBA(경영학석사) 과정: 총 200명 내외 (현 재학생규모: 355명)

- 테크노경영전공 (Techno-MBA)
 - 기술·생산경영
 - 마케팅
 - 벤처경영
 - 회계·재무 및 경영분석
 - e-비즈니스
 - 전략 및 조직
- 경영정보전공 (MIS-MBA)
- 통신경영/정책전공 (Telecom-MBA)
- 금융공학전공 (FE-MBA)
- 환경경영/정책전공 (Green-MBA)

<http://kgsm.kaist.ac.kr>

월드컵과 경영자의 자세



박 성 주 테크노경영대학원장

1980년대에 일본 기업
의 경이적인 생산성에 놀
려 고전을 면치 못하던 미
국이 일본 기업을 따라 잡
기 위해 도요다의 간판 생
산 방식도 공부 하고,

Deming이 가르친 품질경영도 거꾸로 배웠으며, MIT의
"Made in America" 보고서도 내는 등 전 국가적인 노
력 끝에 10년 후 경제가 다시 살아났다. 일본을 누르고
신경제를 구가하던 1990년대 후반 미국 경제가 다시 전
세계의 최강자로서 이제는 더 이상의 패배가 없을 것 같
던 때에, 미국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는 의문
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들의 주장은 성공에 따
른 자만심이 미국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는 것이었다. 요
즈음 미국 경제의 느린 경기회복 중에 다시 침체가 오는
"Double Dip" 어려움도 따지고 보면 바로 호화 파티를
즐겨온 자만심에서 비롯된 것이며, 끝없을 것 같은 인간
의 욕심도 자만심의 자정 역할에 의해 호황과 불황의
(경제) 사이클을 생성하게 된다.

온 나라를 엑스터시 상태로 몰고 갔던 월드컵이 끝났
다. 찬란히 빛나는 스타들의 열기를 뜻하는 직경 22cm
의 피버노바가 60억 전 세계를 열광에 몰아 넣고 4,700
만 전 국민을 황홀경에 빠지게 할 수 있는 것은 분명 마
술이다. 새로운 영웅도 탄생하고 새로운 리더십도 배우
기 위해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연고주의 타파, 가치 공
유, 소신, 기본강조, 혁신추구, 전문지식 활용, 개방을
통한 글로벌 스탠더드 도입 등의 '히딩크식 경영'이 화
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경영 원칙들은 사실 우리 모두
가 잘 알고 있고 바꾸어야 한다고 외쳐왔으나 잘 지켜지
지 않고 있던 것이었다. 이번 월드컵의 교훈은 말보다
실천,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겸손과 정직에 바탕을 둔
리더십이 중요함을 말해 준다. 이겨도 우쭐대지 않고 저
도 좌절하지 않는 자기 절제와 선수들을 대할 때의 진실
함과 자신감의 바탕이 된 정직성이 '히딩크 리더십'의
핵심이며 이것이 선수들로 하여금 믿고 따를 수 있게 만

든 것이다.

이쉽게 패배한 독일 팀과의 월드컵 준결승전을 보면
서 경영의 목표설정과 계획기간의 중요성을 또 한번 느
끼게 된다. 만약 우리의 목표가 처음부터 16강이 아니라
우승이었다면 우리의 전략도 바뀌었을 것이다. 동적최
적계획법의 하나인 optimal control 이론에 의하면 제약
조건의 범위 안에서 많은 경우에 bang-bang control 해
를 얻는다. 이는 목표를 주어진 기간 내에 최적으로 달
성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최대의 노력을 하다가 최소
의 노력으로 바꾸어야 함을 의미한다. 목표를 넘어서 뛰
게 되면 결국 힘이 부치게 되고 무리가 따르게 된다. 그
러나 동시에 자만심에 의한 무리한 목표설정은 시작부
터 실패로 이어질 확률이 커진다. 이처럼 경영자에게 있
어서 적절한 목표 설정은 대단히 힘들고 중요한 일인 것
이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부심과 한껏 높아진 Korea
Brand 이미지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에 큰 보탬
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 전체로도 어렵게 얻은 자부심
과 단합된 마음을 국운상승의 기회로 최대한 활용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자부심은 자칫 자만심으로 빠질 수
도 있다. 잘 나아갈 때에 겸손할 수 있다면 더 바랄 것
이 없겠으나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 것도 자연의 순리
일지 모른다.

우리가 월드컵에서 한창 승승장구할 때 쓰라린 패배
를 맞본 중국을 위로하고, 치욕적인 8대0 성적을 기록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아픔을 헤아릴 줄 아는 마음을 가졌
던가? 기업의 최고경영자는 승리를 위해 노력하는 동시
에 패자의 아픔도 헤아릴 줄 알아야 진정한 승자이다.
패자의 입장에서 볼 줄 아는 겸손이 있어야 새롭게 거듭
날 수 있으며 이것이 기업의 일시적인 경쟁력에서 벗어
나 지속적인 성공을 보장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월드컵
에서와 같이 기업경영에서도 자만은 성공의 가장 큰 적
이다.

경영자와 경영능력

이 중 문 KAIST 명예석좌교수, AMBEX 회장

개선(改善)이라는 단어를 좀 더 강한 표현으로 개혁(改革)이라고 하는 것 같다. 요즘 들어 개혁이라는 단어가 우리 주위에 넘쳐흐름을 본다. 심지어 성경에도 “새 술은 새 부대에...”라는 구절이 있다. 2000년 전에도 새로움을 강조해야 했던 것 같다. 그러나 사회적 현상(現象)으로서의 개혁이란 “새 술은 새 부대에”가 아니고 새 술을 헌 부대에 넣는 것을 말하는 것일 것이다. 지난 2년간 우리나라 금융업계에서 은행장들이 거의 전원 교체된 것은 우리나라 경제사에서 처음 보는 일일 것이다. 새 술을 헌 부대에 넣어서 효소적(酵素的) 변화를 일으켜 술과 병이 함께 새로워지려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예를 통해서 우리는 변화와 개혁의 핵심으로서의 새 술이란 무엇이냐를 보게 된다.

히딩크식 축구경기를 생각해보자. 팀 경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1) 각 선수의 선발과 역할, (2)경기규칙과 전략, (3) 팀 정신의 고양, (4) 선수 개개인의 컨디션 조절, (5) 손발 맞추기를 통해 쌓여진 필승의 의지가 원동력이었다. 그 다음으로 코치들은 상대방 팀과 비교하여 서로간의 장단점, 선수들과 코치들까지의 주특기, 사기(士氣) 등을 충분히 분석하고 검토, 평가, 보완하여 우리 선수 각자에게 충분히 무장시킴은 물론 공격과 방어전략, 그리고 경기장의 컨디션, 날씨, 바람, 관중들의 성향과 반응에 이르기까지 주지(周知)시킨 다음 경기장에 선수들을 들여보낸다. 그리고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코치는 시시각각의 상황에 대응 하는 전술을 선수들에게 주문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경기를 잠시 중단시키고 새로운 작전지시를 내리기도 한다. 이때 코치는 (1) 서로의 힘과 능력의 분석, (2) 전략확립, (3) 상대방이 예견치 못하는 새로운 기술개발로 공격하는 전략의 추진, (4) 그때 그때의 상황분석을 통하여 수시로 전술을 바꾸며 경기를 유리하게 이끌어 나가는 노력을 한다.

IBM의 거스너(Gerstner)와 GE의 웰치(Welch)는 기업경영에 있어서 위대한 코치들이다. 재미있는 것은 이 두 사람이 자기들 팀을 짜는데 팀구성원의 선별 기준으로 (1) 현실

과 목표에 대한 정확한 분석능력, (2) 창조적인 사업 모델의 지속적 변화능력, 그리고 (3) 경쟁력강화를 위한 전략적 사고력과 추진력에 두고 있음은 우연의 일치만은 아닌 것 같다.



금융업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American Express)와 식품업의 나비스코(R. J. Nabisco)에서 잔뼈가 굵은 거스너(Gerstner)가 정보기술사업으로는 천하 제일인 IBM의 CEO로 스카우트 될 때에 그 이유가 앞에서 말한 두개의 서로 다른 업종에서 “어렵던 회사를 회생시킨 실적”에 있었다고 한다. 특히 그의 특징은 “스스로 문제를 찾아내어 자기자신의 머리에서 “해결 방법을 짜내고” “자기책임아래 판단하여” 어려운 “문제점들을 짧은 시간 안에 풀어나가 경쟁을 제압(制壓)할 수 있는 전략수립 자질과 추진력”이라고 한다. 특히 그의 현물(現物), 현장(現場), 그리고 기업이 처해 있는 현실(現實)에 대한 면도칼 같은 예리한 “분석에 근거를 둔 문제해결 능력”은 감히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천재적이라고 한다. 1994년 IBM입사당시 6조원의 결손을 내는 회사를 3년 뒤에 6조원의 흑자를 내게 하였으니, 3년 만에 약 12조원이 넘는 수치개선을 이루어냈다는 결과이다. 그의 이러한 능력에 놀라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또 한가지 거스너의 특징적인 점은 IBM을 재건시키는데 있어서 자기의 오른 팔 보좌역으로 소비재 식품업인 보스턴 치킨(Boston Chicken)에서 전략담당부사장(Strategy VP)을 데려왔다는 점이다. 우수한 인재 층이 두텁기로 이름난 IBM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용병술이었다. 물론 그 이유는 “분석능력”, “전략을 짤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문제 해결능력” 때문이었다고 한다. 오늘 경영자 교육의 내용이 이론의 전달뿐이 아닌 기업가 정신과 기업윤리를 바탕으로 하는 문제해결능력에 있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본다. 특히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볼 때 더욱 그런 것은 아닌지.

기부자 명명대학(Endowed School) 선포식 개최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은 5월 24일 서울 홍릉캠퍼스 수펙스경영관에서 세계 톱10을 향한 '기부자 명명대학 비전 선포식'을 가졌다. 테크노경영대학원 발전기금 출연자를 대상으로 마련한 이번 행사는 발전후원회 정기총회, 기금출연자에 대한 명판 제막식 등으로 진행됐다. 또한 대학원 발전기금 현황보고와 함께 향후 기금조성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날 행사에는 발전후원회장을 맡고 있는 한나라당 김진재 최고위원과 류영하 금속산업(주) 회장, 신평재 교보증권(주) 이사회의장, 유경선 유진기업(주)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으며, 유경선 대표이사는 이날 행사에서 대학원 발전기금으로 1억원 기부를 약속하였다.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지식기반 전자정부 연구센터(KeGRC) 설립

국가 정보화의 초석이 될 전자정부에 관한 민간부문의 체계적인 연구와 교육이 추진된다.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은 지난 4월초 지식기반 국가 경쟁력의 기본 토대인 전자정부에 관한 연구와 교육을 수행할 지식기반 전자정부 연구센터(KeGRC)를 설립했다. 이 연구센터는 정부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김성희 교수가 센터장을 맡게 되었고, 한인구, 이희석, 이창양, 이병태, 황보열 교수의 참여와 센터의 전문 연구원들로 운영되고 있다.

연구센터는 지금까지 개별 단위사업 관점에서 추진되어 온 전자정부를 범국가적 차원의 지식화 통합의 관점에서 조망해봄으로써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올바른 발전상을 마련하고, 국내외 전문적 역량을 결집하여 전자정부의 선도적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e-Government Global HUB 역할 수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같은 목표 아래 연구센터는 전자정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 공무원과 기업의 의사결정자들을 대상으로 전자정부 고위과정(AeG) 개설을 준비하고 있으며, 삼성 SDS의 후원으로 1년 간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차기 전자정부의 구현에 필요한 청사진과 추진전략 도출을 위한 연구를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우리나라의 정부, 기업, 학계의 전자정부 역량을 세계 일류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활발히 펼칠 계획이다.

배순훈 교수, 브라질 정부 훈장 수상



정보통신부 장관을 역임한 배순훈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가 한-브라질 관계증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5월 13일, 브라질 정부로부터 리오브랑코 훈장(The Rio Branco Order)을 받았다. 배순훈 교수는 한국과 브라질간 협력관계 재정립을 위해 지난 1992년 설립한 '한-브라질 21세기 위원회'의 한국 측 위원장을 맡아 활동한 바 있다. 브라질 외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리오브랑코를 기리기 위해 1963년 제정된 리오브랑코 훈장은 Grand Cross, Grand Officer, Commander, Officer, Knight의 5 단계로 구성돼 있다. 배순훈 교수는 이중 두 번째에 해당하는 Grand Officer급 훈장을 수여 받았다.

이재규 교수, 대통령 표창 및 지능정보시스템학회 최우수, 우수논문상 수상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이재규 교수가 국가정보화 촉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6월 10일 정보통신부 주최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5회 정보문화의 달 기념식에서 이재규 교수는 정보화유공자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이한동 국무총리, 양승택 정보통신부 장관을 비롯한 정보통신 관련인사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e-life : 디지털 세상속으로'라는 주제 아래 진행된 이날 기념식에서 정통부는 국가사회의 정보화 촉진에 기여한 공로자를 선정, 포상하고 공로를 통해 선정된 정보문화상 수상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또한 지난 5월 10일, 11일 양일간 이재규 교수팀은 부산에서 열린 한국지능정보시스템 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최우수논문상과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이재규 교수와 손미애 씨(경영공학 박사졸업), 강주영 씨(경영공학 박사과정)가 공동으로 발표한 'XRML의 설계원리와 응용'이 최우수논문상을, 이 교

수가 이현정 씨(경영공학 박사과정)와 공동 작업한 '맞춤 구성을 위한 추론기법'이 우수논문상의 영광을 안았다.

한민희 교수, 한경마케팅대회 공로상 수상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한민희 교수가 제4회 한경마케팅대회 공로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기업의 살아있는 마케팅 성공사례를 기업이나 학계 등에 널리 알려 많은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여주기 위해 지난 99년 제정된 한경마케팅대회는 공로상 외에도 브랜드전략상, 틈새시장상 등 총 12개 분야로 나뉘어 시상한다. 6월 28일 한국경제 사옥 18층 다산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한민희 교수는 상패와 부상을 받았으며 시상식 후 공로상 수상기념 특강을 진행했다.

김영걸 교수팀, 한국경영정보학회 춘계학술대회 IBM 최우수논문상 수상



오른쪽으로부터 김영걸 교수, 고준 박사과정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김영걸 교수팀이 6월 20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한국경영정보학회 2002 춘계 학술대회에서 IBM 최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김영걸 교수와 경영공학 박사과정 고준씨가 공동으로 발표한 이번 논문은 "Virtual Community Dynamics: A Conceptual Framework and Empirical Validation"으로 인터넷상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상 커뮤니티의 활성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파악하여 성공적인 가상 커뮤니티 운영전략을 제안한 것이다. 이번 한국경영정보학회 춘계학술대회는 우리 생활 깊숙히 자리잡은 e-Business를 새롭게 재정의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Re-Shaping of e-Busines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이란 주제로 마련되었다.

테크노경영대학원, 제1회 '올해의 동문상' 시상 - 김정태 행장, 이호근 교수 수상



테크노경영대학원은 올해부터 사회적 공헌이 현저한 졸업생을 대상으로 '올해의 동문상'을 제정, 수여키로 하고 2002년 수상자로 연세대 이호근 교수와 국민은행 김정태 행장을 선정했다. 올해의 동문상 시상식은 5월 18일 홍릉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SUPEX 경영관에서 열린 제4회 동문 홈커밍데이 행사에서 치러졌다. 학계 수상자로 선정된 연세대 이호근 교수는 경영과학과 석사 12회로 e비즈니스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산업계 수상자인 국민은행 김정태 행장은 테크노경영대학원 최고정보경영자과정(AIM) 4기 출신이다. 김정태 행장은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의 합병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으며, 합병 후 발빠른 개혁을 추진해 금융계 최고의 CEO로 평가받고 있다. 박성주 대학원장과 정진섭 동창회장은 "올해의 동문상 제정은 귀감이 될 수 있는 동문들의 공헌을 함께 나눔과 동시에 동문들과의 돈독한 유대관계를 다지기 위함"이라고 의의를 밝히고, "향후 우수 동문들과 함께 세계적인 경영대학원으로의 성장을 위해 더욱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유럽지역 경영대학원 연합체 'EFMD' 회원가입

AACSB 공식 인증 추진, GTMC(Global Technology and Management Consortium) 결성 등 다각적인 국제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이 5월 중순 유럽지역 경영 관련 기관인 EFMD(The European Foundation for Management Development) 회원으로 정식 가입했다. EFMD는 유럽지역 경영대학원 및 기업들의 연합체로 경영대학원 공인기구인 세계경영대학원협의회(AACSB International - The Association to Advanced Collegiate School of Business)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 기관이다.

테크노경영대학원은 이번 EFMD 회원가입을 계기로 유럽지역 경영대학원들과의 협력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할 수 있게 되었다.

인터내셔널 센터

새로운 International center 소개

인터내셔널 센터가 지난 4월 1일, 기존의 어학센터 (GLI)의 개념을 넘어 보다 총괄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어 새로이 문을 열었다. 이제까지 글로벌화에 강한 의지를 보여온 테크노경영대학원은 본격적으로 외국 대학들과의 교류증진, 국제홍보를 비롯한 제반 해외관련업무를 한 곳에 모아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인터내셔널 센터는 김재철 교수와 베티 정 교수와 공동으로 Director를 맡아 테크노경영대학원의 국제화를 위해 진두지휘 중이다. 베티 정 교수는 이번에 개편 설립된 인터내셔널 센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인터내셔널 센터는 학생, 교수 그리고 직원들을 위한 모든 국제화 관련업무를 총괄하는 중추적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인터내셔널 센터는 특히 학생들에게 해외관련 정보들을 One-Stop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이는 센터의 미션이 미래의 글로벌 리더를 키우는데 모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인터내셔널 센터는 여러 가지 교환학생프로그램, 해외 연수프로그램, 해외인턴, 그리고 세계화 능력배양을 위한 리더십 코스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우수한 해외 학생 및 교수진 유치를 통해 우리 학생들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생들도 앞으로 인터내셔널 센터를 자주 방문하고, 적극적으로 이러한 프로그램과 기회들을 알고 활용하여 자신의 가치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베티 정 교수도 언급하였듯이 인터내셔널 센터는 학생들의 글로벌화를 위한 조직이다. 그러므로 테크노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용이 뒤따라야 그 가치가 더욱 빛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크게 보면 인터내셔널 센터의 설립은 테크노경영대학원의 21세기를 위한 세계화전략의 일부이다. 현재 테크노경영대학원은 '세계경영대학원협의체' (경영대학원 공인기구: AACSB International - The Association to Advanced Collegiate School of Business)의 공식 인증을 받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데, 그 결과 올 3월 AACSB로부터 '자격인증 (Eligibility Confirmation)' 연락을 받고, 현재 본 심사 단계에 있다. 자격인증은 본 심사를 받을 자격여

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많은 대학들이 이단계부터 시작하며, 통상 3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테크노경영대학원은 이 단계를 승인받음으로써 1~2년 내에 인증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러한 AACSB 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그들이 내세우는 세계적인 경영대학원의 공통조건과 자질을 갖추기 위한 꾸준한 개혁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그렇다면 과연 세계적인 경영대학원의 공통조건과 자질은 무엇이며, 이러한 조건과 자질을 갖추기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너무 거창한 것들을 생각해 내고는 난감해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언제나 성공의 시작은 작고 일상적인 것의 변화에서부터 오게 되는 것이다.

인터내셔널 센터를 방문하여 세계로 도약하는 테크노경영대학원의 변화의 몸짓을 확인해 보자. 새롭게 구성된 인터내셔널 센터의 각 실무 담당자들과 그에 따른 상세업무분담은 다음과 같다.

* 어학센터 프로그램

(담당:이향숙)

(GLI Services)

Language Courses, Certificate Program, Lecture Series/Globally Speaking Journal, International Center Budget, Recruitment of International Faculty, OPI services

* 국제협약/교환학생

(담당:황애경)

(Exchange program and partnership)

AACSB (국제인증사업), PR & Marketing, International Internship program

* 해외연수 프로그램

(담당:최미영)

(Global Immersion Program)

RPI, San Francisco immersion program, 상하이 프로그램, 국내 immersion program, 금융공학 해외연수 프로그램

취재 정리 | 김정배 기자

테크노경영대학원

초대학생회 출범

학생회 의장으로 출마하게 된 동기는?

학창위 구성원으로 직접 활동을 하지는 않았지만, 학생회 구성과 활동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었고, 의장을 맡을 것이라곤 생각 못했는데, 주변에서 워낙 강하게 부탁하고 설득하여 의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제가 MBA와 경영공학 과정을 모두 경험하였기 때문에 양 쪽의 필요에 대해 잘 이해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저를 추천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학생회를 준비하게 된 동기는?

전에도 학생회에 대한 논의는 있었지만, 일이 끝까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느 때보다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고, 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면서 학창위(학생회창립위원회) 활동이 탄력을 받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좋은 성과를 이루게 된 것 같습니다.

이번 학생회의 구성과 특징을 설명한다면?

전체 학생 대표는 각 과정별, 학년 별 대표 1인씩 총 18명으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학생회는 다시 과정별 1명씩 학생대표와 1명의 의장, 그리고 의장이 지칭할 수 있는 2명 정도의 집행부로 구성되지요. 이번 학생회의 특징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연차 대표자들이 운영 방식을 논의하여 결정, 간선제 의장 선출한 학생회라는 점이며, 현재는 적극적 의견개진을 강조함에 따라 집행부가 약한 과도기적 체제로 볼 수 있으나, 차후 완성된 학생회 체계를 위해서는 보다 강화된 집행부의 모습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학생회의 모습이 있다면?

학교 측에서는 우선 학생회를 통해 동아리를 활성화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

아리 활동을 통해 공부 이외에도 생활을 즐기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또한 외부 강사들이 KAIST에서의 강의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학교 이미지를 좋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 중입니다. 무관심한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학생회의 기틀을 잡고 집행부와 대표자 협의회와 함께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학생회 활동 전략이 있다면?

처음에는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처리하는 일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일단은 아웃룩 공용폴더의 학생회 게시판과 인터뷰 등을 활용해 의견을 수렴하는 풀(Pull) 전략과 학생회 현안 및 진행 사항에 대해 이메일을 보내고 뉴스레터 등을 활용한 푸시(Push) 전략을 함께 사용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수렴된 의견들에 대해서는 회의를 거쳐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안건들을 대표자협의회에서 선별하여 사업을 수행해 나가며, 기타 건의사항들에 대해서는 집행부원들이 상의하여 적극적으로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학생회장으로서 다른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

무엇보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학교를 '잠시 거쳐가는 곳'이 아닌 인생의 큰 부분으로 생각하고 학교에 대해 주인의식을 가지고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면,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욥기 8장 7절)'는 성경 구절처럼 학생회가 성장하여 테크노경영대학원의 전통을 세우고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KAIST

지난 6월 21일,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의 초대학생회가 출범하였다. 초대 학생회를 통해 테크노경영대학원 학생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중심점이 되어, 일차적으로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한 활발한 의사소통의 장이 되고자 한다. 이번 학생회장으로 선출된 이형용(경영공학 박사과정)씨와 학창위(학생회창립위원회)를 이끌었고 현재 집행부에서 활동 중인 고준(경영공학 박사과정)씨를 만나 보았다



이 형 용 초대 학생회장

약력

- 97. 8 성균관대 경제학과 졸업
- 98. 9 테크노경영대학원 MIS MBA 입학
- 00. 3 테크노경영대학원 경영공학 박사 입학

취재 정리 송재현기자

Global Forum 2002를 중심으로



1980년 5월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2002년 6월은 너무나 대조적인 의미에서 대~한민국을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었다. 1980년 5월이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한 폭력적인 투쟁의 시간이었다면, 2002년 6월은 월드컵이라는 거국적인 행사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응원부

대가 합세한 아주 재미있는 놀이 한마당이였다. 진정한 의미에서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고, 역사가 적어도 후퇴하지 않고 어쩌면 진보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순진한 믿음을 갖게 한 소중한 경험이었다. 경영교육의 관점에서 보면, 히딩크라는 참신한 외부 영입 리더십의 파워와 연공서열보다 실력이 중요하다는 교훈, 선수들의 글로벌 경험을 통한 “우물 안 개구리” 열등의식의 극복, 독일식 조직력을 넘어서는 브라질식 스타플레이어의 중요성 등을 새삼 환기시켜준 경험이기도 하였다.

이제 “월드컵이 없으니 사는 재미가 없다”는 얘기를 뒤로 하고, 냉정하게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아야 하는 시간이 되었다.

이 글에서는 지난 6월 9일부터 12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렸던 Global Forum 2002를 중심으로 경영교육의 세계적인 동향과 해결해야 할 과제 그리고 우리에게 던져주는 몇가지 시사점을 정리하고자 한다.

참고로 Global Forum은 1989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처음 개최된 이래, 월드컴처럼 4년에 한번씩 대회를 바꾸어가며 세계 비즈니스 스쿨 학장과 Director, 임원 교육 및 기업교육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열리는 경영교육 컨퍼런스이다. 특히 아시아에서 처음 개최된 이번 방콕 포럼은 총 76개국, 771명이 참가해 최대 규모를 자랑했는데, 이 컨퍼런스를 통해 파악한 세계 경영교육의 동향은 다음과 같이 몇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I. 경영교육의 동향

1 국제화(Globalization) 방콕 포럼의 기치는 “전통

적인 경계를 넘어서 (Breaking Traditional Boundaries)"로서, 낡은 가치와 새로운 가치의 경계, 동서의 이념적인 경계, 정부와 시민사회 및 비즈니스 섹터간 경계, 개인간 존재하는 경계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임을 보여주었다. 9/11 테러와 같이 전혀 예상치 못한 경영환경의 변화로 말미암아 비즈니스 판도가 180도 달라질 수 있는 현 상황에서 미래의 리더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게 한다. 즉, 새롭게 요구되는 가치는 환경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적응력, 성실성, 투명성, 비즈니스를 둘러싼 이해당사자, 즉 주주뿐 아니라 정부와 시민사회 그리고 내부고객(종업원)에 대한 이해와 책임감 등이다.

국제화를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두 가지 개념은 글로벌 스탠더드의 확산과 지역간 국가간 학교간 제휴와 파트너십이다. 이번에 소개된 글로벌 스탠더드는 미국식 접근인 AACSB 인증과 유럽식 평가인 EQUIS이다. 비즈니스 스쿨의 전반적인 전략과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두가지 인증 시스템을 통해 경영교육의 지속적인 성장이 정기적으로 점검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글로벌 파트너십은 단순한 학교간 제휴 프로그램을 비롯, CEMS와 같이 유럽의 17개 학교가 기업과 함께 파트너십을 형성, 프로그램의 질적 제고와 교수 학생간 교환을 통한 자원의 공유를 실천하고 있다. 아시아의 경우, 중국과 싱가포르, 홍콩이 전략적 요충지로서 세계적인 비즈니스 스쿨(Euro, INSEAD, Kellogg)과 전략적 제휴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지역적 잇점을 심분 활용하고 있다.

국제화의 수준이 개인의 인식속에서 어느 정도 구체화되고 있는가는 방콕 포럼의 전체 세션에서 즉석으로 이루어진 “국제화 인식 조사(Transcultural Awareness Survey)”를 통해 알 수 있다. 국제화를 가늠할 수 있는 특정 국가의 비즈니스 행태와 태도, 남녀 차이, 상징성과 관련된 질문을 통해 비즈니스 상대 국가와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개인수준에서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조사에서, 오히려 이 포럼의 대다수 참가자인 학장과 Director의 의식수준이 최하위이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30대 초반의 비주류 참

Global Forum 2002를 중심으로

가자들이 가장 긍정적인 답변을 보이고 있다는 아주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다. 이와 같은 간단한 의식구조 조사를 통해 지역간 국가간 학교간 글로벌 제휴 프로그램의 개발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국제화를 위해서는 개인적인 수준에서의 의식구조 변화도 중요함을 역설해주고 있다.

2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번 포럼에서는 비즈니스 부문을 둘러싼 이해당사자, 즉 정부와 시민사회 그리고 내부고객(종업원)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강조하였다. 유럽통합(Euro)과 같이 특정 지역 국가간 제휴와 중국의 정부 주도 비즈니스, 아시아 통화위기와 극복 노력을 통해 무엇보다도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부각되면서, 비즈니스 부문에서 정부와의 적극적인 관계개선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다국적 기업의 현지문화에 대한 이해는 단순히 국제화의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비즈니스 윤리를 환기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또한 전통적인 의미의 고객이 외부고객을 의미한다면, 좀 더 확대된 의미의 내부고객인 종업원의 자기계발과 경력계발을 위한 기업의 노력이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장기 투자의 개념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를 요약하면, "corporate governance"에 대한 관심과 시민의식, 윤리기준, 환경문제 인식 등이 경영교육의 관점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부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프로그램 개선방안 급격한 경영환경의 변화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감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경영교육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무엇보다도 프로그램의 질 자체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요구이다. 방콕 포럼에서 소개된 경영교육의 개선노력은 몇 가지로 요약가능한데, 하나는 스위스 IMD와 같이 아예 비즈니스와 경영교육의 경계를 넘어서서 기존의 조직구조 자체를 없애는 방법이 있다. 결과적으로 비즈니스 스쿨 내에 특정 학과도 없고 직위를 나타내는 호칭도 없으며, 교수의 tenure 제도를 없애는 대신, 철저하게 교수들의 연구와 강의 성과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고 학계와 비즈니스, 지역간

경계를 넘어 교수를 채용하는 파격적인 제도를 채택한다. IMD 사례가 극단적인 경우라면, 국제화가 잘 되어 있는 학교로 알려진 미국의 썬더버드(Thunderbird) 대학은 좀더 온건한 방법을 선택하여 교수와 박사과정 및 연구자료를 국제적으로 교환하거나 퇴직교수를 적극 활용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볼드윈-월리스(Baldwin-Wallace)대학은 균형성과지표(BSC)를 활용하여 International MBA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개선한 사례를 제시한다. 이를 통해 단순히 몇 개의 교과목을 바꿈으로써 경영교육의 질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개선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BSC 모델을 변화의 도구로 활용하여, 고객과 재무구조, 프로세스, 학습과정 전체를 진단하는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혁신이 가능하다는 예를 보여준다.

II. 경영교육의 과제

1 교수 절대 부족 비즈니스 스쿨에 대한 요구 대비 박사학위 소지자 교수 비율을 볼 때 향후 오랫동안 박사학위 소지자 교수의 절대 부족이 예상된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는 실제 현장 경험에 바탕을 둔 비즈니스 전문가의 적극 활용, 경제학을 비롯한 인접 인문 사회 과학 교수의 활용,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교육 등이 가능하다. 이미 전술한 바와 같이 학교간 국제적인 제휴와 파트너십을 통해 연구자료와 프로그램 및 교수 자원을 공유할 수도 있다.

2 임원교육의 확대 최근 비즈니스 스쿨에 대한 순위(ranking) 결과가 프로그램의 질 평가에 적극 활용되면서 순위 조사의 중심을 차지하는 MBA 프로그램과 비즈니스 스쿨 전체 수입원의 25% 정도를 차지하는 임원교육(비학위과정)에 대한 수요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MBA 과정의 경우, 국제경험을 강조하는 글로벌 MBA와 기업 자체의 요구를 반영하는 사내(in-house) MBA가 계속 늘어가는 추세이며, 임원교육의 경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대학(corporate university)과 불가피한 경쟁상태에 놓여 있다.



Global Forum 2002를 중심으로

3 적합성의 문제 변화와 혁신을 강조하는 비즈니스 경영환경에 적합한 경영교육은 두가지 핵심역량인 커뮤니케이션 기술 향상과 실제 현장 경험에 바탕을 둔 교수의 충원에 의해 가능하다. MBA 과정의 목표가 비즈니스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경력개발이고, 실제 연구 결과를 통해 보더라도 개인수준에서 앞으로 바람직한 성과를 낼 수 있는 개인적인 역량에 대한 자신감을 고취시키는 것이라면, 이와 같은 목표에 적합한 학습환경과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여기서 적합성이란 교수의 연구와 과목이 경영환경에 부합해야 한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교수방법, 교육장소, 다양한 학생, 윤리적인 이슈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4 전략적인 접근의 필요성 현재와 같이 교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경영교육의 적합성 문제와 비즈니스 스쿨의 주요 수입원이 되고 있는 임원교육의 확대 문제는 보다 근본적으로 전략적인 접근의 경영교육이 필요함을 역설해주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는 단순히 부족한 자원의 재분배 문제라기보다는, 근본적으로 비즈니스 스쿨이 순수 연구 중심을 지향할 것인지, 아니면 수입원을 고려한 강의중심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아니면 둘 간에 어느정도의 포지셔닝이 필요한 것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경영교육에 있어 제한된 자원의 분배와 프로그램 개발의 우선순위가 결정된다. 바로 이와 같은 비즈니스 스쿨의 미션과 전략에 따른 실천계획의 연계 정도는 국제 인증기관인 AACSB의 가장 중요한 평가 척도이기도 하다.

III. 몇가지 시사점

이번 방콕 포럼은 아시아에서 처음 이루어진 경영교육 관련 국제행사로서, 세계에서 76개국 대표가 참가한 것도 인상적이었지만, 전체 특강 세션에서 발표한 동남아시아 대표들의 영어수준과 내용이 진정 국제적이었던 점이 인상적이었다. 예를 들면, business ethics, social citizenship, environmental management, corporate responsibility, transcultural awareness,

change management 등의 메시지가 경영교육의 비전을 보여주는 듯 많은 여운을 남겼다.

특히 이번 포럼은 “국제화”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되새김질하는 계기가 되었다. 즉, 단순히 영어를 유창하게 잘 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글로벌이란 무엇보다도 먼저 다양성을 인정하고 다른 문화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궁극적으로 바람직한 전략적 제휴와 파트너십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이 실시하고 있는 국제화 프로그램이 개인수준에서 다양성을 인식하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영어 표현의 수준을 높이는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경영교육의 미션과 전략이 교수의 절대 부족과 자원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실천방안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AACSB 인증과정에서, 우리 프로그램이 전체적으로 어느정도 글로벌 스탠더드를 견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동시에 우리 특유의 독자성을 어느정도 견지하고자 하는지 함께 고려하는 균형잡힌 시각도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경영교육은 단순히 경영현상에 대한 분석전문가만을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상의 하드이슈와 소프트이슈를 총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혁신적 리더를 양성하고자 하는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하는 것 이어야 한다. 소위 “기술을 이해하는 경영자”란 정보기술과 재무지표를 읽을 줄 아는 전문가적 안목은 물론, 비즈니스 이해당사자, 즉 정부와 시민단체, 내외부 고객의 연결고리망을 이해하는, 보다 넓은 의미의 리더로 재정의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번 포럼을 통해 얻게 된 메시지가기도 하다. 이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히딩크식의 뛰어난 지도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뛰어난 지도자를 떠받치고 있는 총체적인 시스템이라고 했을 때,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 힘써야 하며, 바로 이와 같은 과정에서 우리의 경영교육이 세계수준의 질 높은 프로그램으로 한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고 본다.

서울시 건축상을 수상한

SUPEX 경영관의 이모저모



서울시 건축상 기념동판

서울시는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을 장려하고 도시 미관을 향상시키고자 1979년부터 매년 '서울시 건축상'을 시상해 왔다. 현재 SUPEX 경영관 현관 앞에는 서울시 건축상 수상을 기념하는 동판이 세워져 있다.



SUPEX경영관

KAIST 서울캠퍼스는 단연 돋보인다. 아름다움과 세련됨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KAIST 서울캠퍼스는 크게, 교육 및 연구시설, 기숙사 시설, 교수아파트시설, 기타 시설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기타 시설(후생복지관, 내빈관, 수위실 등)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들은 제1호관에서 10호관까지 건립 순서대로 번호 매겨진 총 10개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학교의 특색과 학생들의 개성을 살려 디자인되고 공간 배치가 이루어 졌다.

특히 이번에 서울시 건축상을 수상한 2호관(SUPEX 경영관으로 변경됨)은 본래 1973년 9월에 준공된 것으로, 같은 해 8월에 준공된 1호관(現 테크노경영대학원, 고등과학원 사용)에 이어 두 번째로 준공된 건물이다. 본래 지상 4층이었던 이 오래된 건물이 리모델링 작업을 거쳐 마침내 1998년 11월 18일, 첨단 멀티미디어 A/V 시스템, 고속의 랜(LAN) 설비 및 전자도서관 등 세계 정상급의 교육 시설을 갖춘 지상 5층의 'SUPEX 경영관'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그로부터 'SUPEX 경영관'은 국제 비즈니스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학문 및 실무 분야의 고급 인력 양성을 위한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지난 5월 16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있었던 '제20회 서울특별시 건축상' 시상식에서,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제2호관인 'SUPEX 경영관'이 리모델링 부문 우수작품으로 선정되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서

우후죽순격으로 들어선 무미건조한 건물들, 학교의 특색과 학생의 개성을 전혀 찾아 볼 수 없어 삭막한 느낌마저 주는 여타 캠퍼스들 틈에서

그렇다면 SUPEX 경영관에는 또 어떠한 숨겨진 매력이 있을까? 서울캠퍼스 운영팀 박종익 씨는 먼저 건물 내부의 세심한 디자인을 꼽았다. 우선 길이 100m를 약간 넘는 복도의 천장을 올려다 보면 천장 양쪽에 독특하게 디자인된 무늬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천장의 디자인은 공간을 넓어 보이게 하는 시각적 효과를 준다. 또한 남녀 화장실 타일의 색깔을 각각 붉은 색과 푸른 색으로 하여 청실홍실을 나타내고자 했다. 이렇듯 눈에 잘 띄지 않는 조그만 부분에도 신경을 쓴 흔적이 역력함을 알 수 있다.

SUPEX 경영관의 명소로 단연 아트리움을 꼽을 수 있다. 아트리움은 SUPEX 경영관과 7호관 건물로 둘러싸여 있어 건물 안의 건물과 같은 느낌



아트리움

감을 주며, 유리과 철재 골조로 이루어져 보는 이들에게 독특한 인상을 남긴다. 또한 이 곳은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휴식 및 문화 공간으로, 동시에 각종 세미나 및 교육활동을 위한 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그래서 아트리움은 우리 학교를 방문한 외부인들이 가장 칭찬을 아끼지 않는 곳이라고 한다.

그러나, 리모델링된 SUPEX 경영관은 아쉽게도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증축된 5층은 건물의 하중을 줄이기 위해서 석고 보드와 스티로폼을 사용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다른 건물에 비해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울 수 있으므로 운영팀에서는 교육환경의 적절한 온도유지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 또한 아트리움은 비가 올 때 새는 문제가 간혹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는 유리 사이의 실리콘이 태양열을 받아 그 사이가 뜨게 되는 현상 때문이다. 이는 모두 현재의 기술로서는 불가피한 예견된 현상이므로, 대학원과 서울캠퍼스 운영팀에서는 학교 시설물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관리를 통해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 개선해 나갈것이라고 한다.

끝으로, 월드컵 중계방송 시청도 뒤로 하고 인터뷰에 응해 주신 서울캠퍼스 운영팀 박종익씨께 감사드리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그 동안 무심코 지나쳐 왔던 학교 건물 내부를 새로운 눈으로 다시 한 번 감상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취재 정리 | 김문용기자

또 하나의 글로벌 스탠다드

지난 해 미 재계 7위인 세계 최대 에너지 기업 「엔론」의 파산에 이어, 얼마 전 미국 제 2위의 장거리 전화회사인 「MCI 월드컴」의 회계 부정 사건이 보도 되었다. 「MCI 월드컴」사태는 현재 확인된 조작 액수만도 38억 달러 상당인 사상 최대 사건이다. 이로 인해 「MCI 월드컴」은 파산이 불가피해졌고 관련 금융 기관도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특히 미국 경제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지면서 전세계 금융 시장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들을 볼 때, 기업의 '윤리 경영'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과 직결된 필수 요소가 되었다.

이번 특집에서는 기업의 생존과 성장의 키워드로 떠오른 '윤리 경영'의 실천적 측면에서, 우리나라에서의 윤리 경영 실태를 살펴보고 해외 기업들의 사례들과 비교하여 우리의 윤리 경영 수준을 평가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윤리 경영을 실천하는 미래 경영자 양성을 위해 해외 경영대학원들과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에서는 어떻게 윤리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 보았다.

우리나라 윤리 경영의 현주소

한국의 국가부패지수 순위변화

년도	순위
1996	27
1997	34
1998	43
1999	50
2000	48
2001	42

*순위가 낮을 수록 투명
자료 : TI, 2002

국제투명성기구(TI)가 2001년 발표한 국가별 부패지수와 뇌물공여지수를 보면 한국의 부패지수는 91개국 중 42위, 뇌물공여지수는 21개국 중 18위에 머물렀다. 한국의 윤리 지수는 <표1>에서 알 수 있듯이 99년까지 계속 나빠지다가 이후 소폭 개선되고는 있으나, 2001년의

91개국 중 42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PwC(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가 발표한 기업의 경영투명성 조사 결과에서는 우리나라가 35개국 중 31위로 평가되었고, IMD(스위스 국제경영대학원)의 국가 경쟁력 보고서 중 기업차원의 윤리 지수에서도 한국은 내부자 거래, 기업신용도, 이사회 윤리적 기능, 관리자의 사회적 책임 항목 등에서 낮은 점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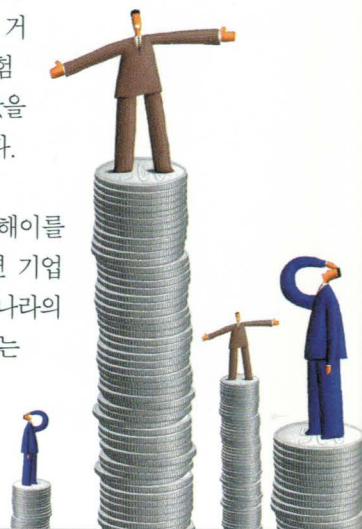
이러한 국제적 윤리 지표는 부패국이라는 국내외 비난 여론 뿐 아니라 외국투자 감소까지 일어난다는 점에

서 중요한데, 이러한 윤리 지수에서도 우리 사회의 '뒷돈 거래'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그 동안 국내에서는 정현준, 진승현, 이용호, 윤태식 게이트 등 끊임없이 부패 사건들이 대서특필 되어왔고, 이제는 웬만해서는 놀라지도 않을 만큼 천문학적 액수의 돈이 신문지상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용호 게이트의 경우, G&G 그룹의 이용호씨가 구속되기 전까지 6달 동안 사용처가 불분명한 지출이 57억원에 달했으며 이 중 7월 한 달간 지출한 자금만 23억 원이 넘을 정도였다.

금융권에서도 대우그룹의 부실 회계 금액이 22조 9천억에 이르렀던 일을 굳이 상기하지 않더라도, 2002년 상반기에만도 회계 장부 조작으로 적발된 업체가 25개사, 주식 불공정 거래 혐의로 57개사, 리베이트로 보험사 8개사가 적발되어 중징계를 받았을 정도로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기업의 부정 부패, 도덕적 해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꼽는다면 기업의 접대 관행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의 접대 풍토는 이제 '접대 문화'라는



용어로 일컬어질 만큼 일반화 되었다.

우리나라는 외환 위기 전후인 96~98년의 접대비 총액이 10조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고, 접대비 증가율이 매출 증가율과 비슷하게 나타났을 정도로 접대비와 관련하여 비합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특히 2001년의 경우에는 매출 증가율이 1.7%인데 비해 접대비는 4.1%가 증가하여 접대비가 매출보다 2.4배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이러한 접대비 사용에 대해 기업들은 '현실적으로 접대비를 쓰지 않으면 영업을 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기업의 지나친 접대비 지출은 생산적인 부문에 사용될 자금을 소모시킴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외국인의 투자를 축소시키는 부작용을 가져오게 된다.

외환 위기 이후로 국내에서도 기업의 투명 경영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분식 회계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한 반감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이 확산됨에 따라 정보의 불균형이 줄어들고 소비자의 힘이 커지

면서 비윤리적인 경영의 위험도가 증가하게 되었고,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윤리 강령을 채택하기 시작하였다. 2001년 전경련 조사에 따르면 500개 조사 대상 기업 중 45.2%가 윤리강령을 채택하는 것으로 나왔으며 이는 1999

설문조사

예비 경영자들의 윤리 의식 보고서

‘정직/도덕성’ (27%), ‘투명경영’ (20%)

예비 경영자인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재학생들이 경영자 윤리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지정한 것은 ‘정직’이었다.

테크노경영대학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설문에서는 경영자 윤리에 대한 응답자의 일반적인 인식 조사에 더불어 한국적 경영 상황에서의 한 예로 접대 문화에 대한 인식 조사를 수행하였다.

접대 문화의 효용성을 묻는 물음에 응답자의 77%는 한국적 경영 상황에서 여전히 ‘접대 문화’의 효용성이 있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직장 경험이 있는 경우 42%가 접대 경험이 있었으며, 직장 경험이 없는 응답자들은 필요하다면 접대를 할 수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11%였다.

접대의 효용성에 대한 설문 중 흥미로운 것은 직장 경험이 있는 사람일수록, 그리고 남성일수록 접대의 효용성을 믿는 정도가 높았다는 점이다. 아울러 직장 경험이 있는 사람인 경우 조직이 자신의 신념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87%에 달해 경영자의 윤리에 있어서 조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반증하여 주었다.

취재 정리 | 권철현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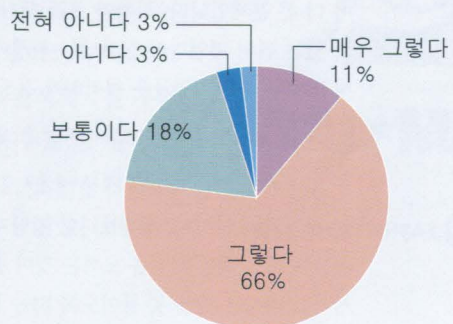
국내 접대비 현황

년도	접대비(억원)	접대비증가율
1999	8400	10.8%
2000	9400	11.8%
2001	9800	4.1%

‘경영자 윤리’ 하면 떠오르는 단어

순위	단어	비율
1	정직(도덕성, 청렴 등)	27%
2	투명경영	20%
3	대리인문제	7%
3	뇌물	7%
3	분식회계	7%
6	대우, 김우중	5%

접대가 효용성이 있는가?



년 조사된 21.8%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의 90%가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70%가 기업의 비전과 가치 속에서 이를 강조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 수준이 매우 낮

음을 알 수 있으며 그나마 윤리 강령을 갖고 있는 기업조차도 대부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침은 제시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다.

취재 정리 | 송재현기자

interview

경영자 윤리와 관련해 실제 벤처 기업에서 벌어지는 일들과 이에 대한 경영자들의 생각을 듣기 위해 인터뷰를 실시했다. 인터뷰에 응해준 A씨(28세)는 지난 3년간 한 벤처 기업에서 전무이사로 재직한 경력이 있으며 업계 현실이나 사정에 대해 친절히 설명해주었다.

경영자 윤리에 대해 스스로 정의를 내린다면?

투자 받은 돈을 처음 목적에 맞도록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나 그 돈을 사적인 목적으로 전용하지 않는 것이겠지요. 한마디로 투자자나 주주와 맺은 당초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경영자 윤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주로 어떤 상황에서 접대나 뇌물, 도덕적 해이 등의 각종 유혹에 빠지는지?

벤처 기업은 주로 대기업을 상대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팔아야 하는데 대기업 담당자들이 접대나 뇌물에 매우 익숙해져 있으므로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맞추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뿐 아니라 심지어 자신의 자동차나 오피스텔 구입에도 회사 돈을 이용하는 등 개인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도 있죠.

접대 등은 사업상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은 크게 문제시여기지 않습니다. 경영자가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윤리상으로 더 큰 문제죠.

경영자 윤리에 어긋나는 일들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보통, 투자자들에게 고배수 투자를 받으므로 자본금 중 개인 재산은 매우 적습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위험이 적으므로 돈을 신중하지 않게 쓰게 되지요. 정부 지원 자금은 이자가 거의 없고 너무 쉽게 빌려 쓸 수 있는 것도 큰 문제죠. 벤처기업의 회계 감사가 매우 미약한 것도 이를 부채질합니다.

결국 소위 '눈먼 자금'이 너무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실제 필요로 하는 돈보다 많게는 수십배까지 들어오다 보니 자금 운용력이 약한 벤처 기업에서 이를 주체할 수 없어 함부로 쓰는 유혹에 쉽게 넘어가게 되지요.

대부분의 벤처 기업 경영자들이 그런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지?

벤처 기업 경영자들도 익숙해져 있지만 주 거래 대상인 대기업 담당자들이 이것을 당연시하고 오히려 요구한다는 점이 더 큰 문제입니다. 하지만 최근 대기업의 내사도 강화되고 있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문화가 정착되면서 점점 실력 있는 벤처 기업만이 살아남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외국계 기업들은 확실히 투명합니다. 이들 기업들은 철저하게 경쟁에 의해 선정하므로 접대나 로비 등이 필요 없지요.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줄어들기 위해서 개선될 점은?

우선 벤처 기업 지원에 대한 법적,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고 내·외부적으로 자금 운용에 대한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경영자 스스로 성숙해야 하겠죠. 경영자가 종업원이나 투자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이들에 대한 책임 의식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행히 최근에는 시장의 자정 작용을 통해 비윤리적인 경영자를 퇴출시키고 다시는 발을 못 붙이도록 하는 문화가 자리잡고 있어요. 인츠닷컴의 이진성 사장이나 골드뱅크의 김진호 사장이 시장에서 퇴출된 것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죠.

취재 정리 | 김승하기자

해외 윤리 경영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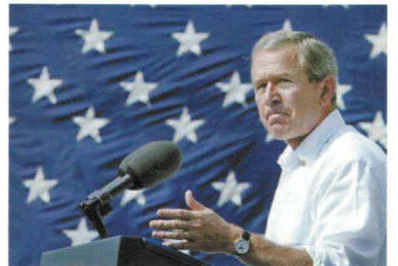
윤리 경영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서구 선진 기업들은 기업 윤리를 더욱 강조하면서 기업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재무적 이익도 함께 얻고자 노력하고 있다.

윤리 경영의 대명사로 일컬어지는 「존슨앤존슨」의 '타이레놀 사건'은 윤리 경영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가 된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1982년 시카고 시민이 독극물이 투여된 타이레놀을 복용하고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자 「존슨앤존슨」은 현장에 직원을 급파하고 이 사건을 모두 언론에 공개하였다. 또한 2억 4천만 달러의 비용을 감수하며 3천1백만 개의 타이레놀병을 수거하여 폐기하였으며 이물질질을 넣지 못하도록 용기를 새로 제조한 후 시장에 다시 내놓았다. 이러한 조치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회사의 신뢰를 향상시켜 매출액 및 주가를 상승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듯 「존슨앤존슨」은 50년 이상 '우리의 신조(Our Credo)'라는 윤리 강령을 경영에 반영하고 윤리 전담 임원의 지휘 하에 '전 사원의 윤리 경영 간부화'를 추진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미국에서 기업 윤리 분야의 선두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3M」은 매우 구체적인 윤리 경영 매뉴얼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규정을 살펴 보면 우선 정부 관료에 대한 접대 선물을 지위 여부에 금액에 상관없이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 했을 경우엔 부당 취득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회사에 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사업에 관련해서는 상대방에게 연간 50달러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할 수 없음이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제시되어 있다.

「모토로라」는 '사람들을 항상 존중하는 마음으로 타협없는 정직성을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뇌물에 대한 윤리 강령을 마련하여 절대적으로 존중하고 있다. 실제로 한 중역은 회사 전체의 연간 이익을 25%나 올릴 수 있는 상담에서 남미 국가의 정부 관리가 커미션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거래 중단을 결정했고, 이와 같은 결정을 최고 경영자가 흔쾌히 받아들임으로써 종업원의 윤리 의식을 공고히 하는데 일조한 사례가 있다.

이외에도 세계적 제지 업체인 「인터내셔널 페이퍼」의 경우 윤리경영 전담부서의 강력한 지휘 아래 전 직원에 대한 엄격한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체 제작한 기업 윤리 헌장을 15개 국어로 번역하여 전세계에 보급하는 데에도 앞장섰다. 또한 「인텔」의 EHS(Environment, Health and Safety) 정책에는 어떤 기업이든지 꼭 지켜나가야 할 기업 윤리의 기본이 제시되어 있으며, 「IBM」은 내부윤리감시체제를 두며 해외 지사들의 현지화예까지 윤리 경영을 적용하였다. 미국 최대의 유통업체인 「월마트」는 회사 창립 때부터 직원들이 납품업자로부터 커피 한 잔도 얻어 마시지 못하게 규제하고 있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즉각 파면하는 엄격한 윤리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WAL★MART®

INTERNATIONAL  PAPER



취재 정리 | 김문용기자

해외 경영대학의 윤리 교육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자랑하는 해외의 경영대학들은 기업윤리 및 기업의 사회적, 법적, 정치적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에 맞춰 교과과정을 대폭 개편하는 등 윤리 교육에 힘쓰고 있다.

Harvard Business School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지도자의 '책임'과 '사회적 기업' 등의 교육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학생들에게 윤리적 자세를 함양 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기업이 사회적 존재로서 갖는 책임에 대해 가르치고 경영인으로서 정책의 효율성, 윤리성을 고려한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University of Pennsylvania, Wharton School

〈펜실베이니아대 와튼 스쿨〉

'윤리성이 결여된 법규는 무용지물이다'라는 경영 윤리의 지침 하에 점차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환경정책 및 환경경영 교육에 주력하고 있다. 이는 경영이 환경과 인류의 건강 및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고 경영인으로서 윤리 의식, 사명감 등을 갖도록 교육하는 것으로 환경 분야에서 경력을 쌓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는 심층적인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최적의 코스로 인정 받고 있다.

Anderson School at UCL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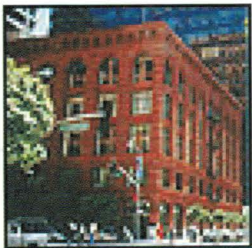
〈UCLA 앤더슨 스쿨〉

성실, 공정, 신뢰, 상호 존중이 중시되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도덕적으로 책임감 있는 경영자들을 육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학생들은 앤더슨 스쿨의 일원으로서 말이나 글로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솔직하도록 교육을 받는다. 또한 앤더슨 스쿨은 높은 성취를 향한 수단으로써 협동과 경쟁에 모두 가치를 두기 때문에 학생들은 개인적으로 일을 해야 할 때를 제외하고는 서로의 학습을 도우며 협력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Graduate School of Management

〈기타 경영대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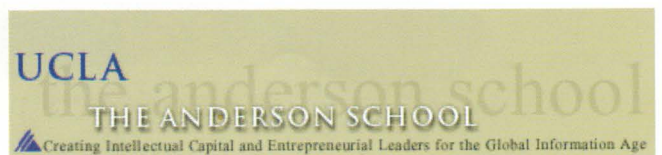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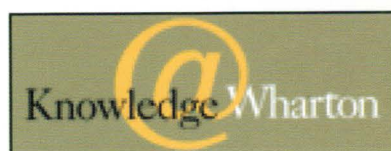
MIT 대학의 슬로안 스쿨은 MBA과정 수강생들이 정규과정을 시작 하기 전 미리 윤리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노스웨스턴 대학의 켈로그 스쿨을 비롯한 대부분의 대학은 의무적으로 별도의 윤리과목을 듣도록 요구하는 것보다는 각 과목에 윤리적 사고가 녹아들게 하는 접근법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Wharton West

최근 잇단 회계조작과 투자자 오도 사건으로 월가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게 되자 미국 비즈니스 스쿨의 윤리교육의 문제점에 대해 비판과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각 대학은 윤리 교육의 실효성을 다시 따져보고 교육과정을 새로이 개편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미국 비즈니스 스쿨인 뉴욕의 버록 칼리지는 내년부터 경영윤리를 필수과목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대에서는 올 하반기 엔론의 몰락사태를 가르치는 코스를 준비하고 있다. 이는 여러 기업의 사례를 함께 가르치는 전통적인 방식과 달리 엔론 하나의 사례만 집중적으로 연구하도록 하는 것이다.

취재 정리 | 김문용기자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의 윤리교육

세계화를 위한 전략적 시각, 새로운 미래와 혁신을 창조하는 리더십, 경영과 기술의 통합적인 지식과 안목, 전문분야의 탁월한 역량 등을 중점 육성하여 장래 우리 사회를 지도할 '글로벌 CEO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테크노경영대학원은 설립초기부터 윤리교육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왔다.

올바르고, 건전한 정신을 가진 경영자 육성을 위한 윤리교육은 신입생 선발에서부터 시작된다. 성적, 영어, 에세이, 우수성 입증 자료, 면접 등 이른바 '종합평가'를 통해서 학생을 선발한다. 서류 합격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2차 심사에서는 면접이 당락을 좌우한다. 면접에서 중점을 두는 부분은 '인성(人性)'으로 장차 경영자로서 적합한가, 윤리의식은 얼마나 투철한가 등에 대한 것이다.

현재 공식적으로 윤리관련 과목이 설치 운영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교과목에서 경영윤리를 기본 요소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부분의 교수들이 학기 초 강의의 시작하기 전에 강의 계획서에 학생으로서, 지식인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윤리와 품성에 대해서 명시하고 학생들에게 주지시키고 있다.

'마케팅'을 담당하는 한민희 교수는 지식을 가르치기 이전에 학생들에게 학생으로서의 자세를 엄격하게 강조한다.

"우선 강의 계획서를 설명하면서 교수로서 학생에게 기대하는 윤리수준을 분명하게 전달합니다. 특히 부정행위에는 시험에서의 부정행위뿐만 아니라 부당

하게 선배나 남의 도움을 받는 행위와 표절행위도 들어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정당한 인용, 누구에게 어떤 도움을 받았는가를 밝히는 등의 윤리적 행동이 무엇인지도 밝힙니다. 저는 융통성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가장 중요한 원칙에 대해서는 매우 강력하게 지키려고 합니다."

'기업가 정신과 창업'을 가르치는 배종태 교수는 수업시간에 전 미래산업의 정문술 사장, 안철수 연구소의 안철수 사장 등 기업윤리의 좋은 역할 모델이 된 CEO의 활동을 소개하고, 이 분들이 쓴 책을 읽도록 추천하고 있다. 특히 배교수는 "벤처 기업의 CEO는 미래가치를 현재화해서 투자자들에게 설명하고 투자를 유치해야 하기 때문에 윤리의식이 부족하거나 막연한 낙관론에 사로잡혀 있으면 투자자와 종업원, 고객들에게 큰 피해를 끼칠 수 있다"며 경영윤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테크노경영대학원에서는 각 과목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윤리교육을 체계화하고 보다 내실있는 교육을 위해 앞으로 '기업윤리' 과목을 신설, 여러 사례를 바탕으로 기업윤리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와 정신을 심어줄 예정이다. 또한, 신상필벌(信賞必罰)을 명확히 하여 윤리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고, 비윤리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강력히 제재를 함으로써 현실적인 윤리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제도적인 보완도 병행하고 있다.

취재 정리 | 이인팔기자



1년간의 세계여행, 그 이후



‘구릿빛으로 그을린 건강한 얼굴로 1년간의 세계일주를 마치고, 떠남의 인사를 할 때처럼 홀연히 나타난 KAIST 테크노 MBA 설윤성씨. 다소 엉뚱했지만 감히 흉내내기 힘들 것 같은 그녀의 1년 간의 세계일주에 대해 들어보았다.

비교적 안정적인 현실에서 벗어나 1년간의 세계 여행을 하려 했던 이유는 무엇인지요?

처음엔 다분히 충동적이었죠. 먼저 말을 꺼낸 건 남편이었는데, 아마도 세계여행이란 걸 통해서 직선 궤도에서 한번쯤 이탈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나 봐요. 일상적인 욕심들에 식상해서 남들과 다른 경험을 가지고 싶었는데, 분명 이런 경험이 내 인생에 두고두고 밑거름이 될 거란 확신은 있었지만, 테크노 사람들이 기대하는 ‘사업 아이템을 찾겠다’거나 그런 건 사실 전혀 없었어요. 경영학도로서 빵점의 대답인가요?(웃음)

준비과정이나 여행 중, 혹은 귀국 후에 어려움은 없었는지요?

많이 준비하고 알고 가면 그만큼 도움이 많이 되지만, 그것보다는 같이 다니는 사람과 어떻게 그 시간들을 쪼여 갔는가에 더 의미를 두고 싶어요. 1년간 떠돌아다니는 여행이라면 그건 자연스레 ‘생활’이 되죠. 1년간의 지속적인 이동에서 내게 있어 환경이란 마치 손살같이 달려가는 자동차 안에서 보는 창 밖의 경치와 같았어요. 처음엔 아무리 눈을 빠르게 돌려도 이 환경과 의미 있는 관계를 나누는 것이 힘들어 고민을 했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나와 함께 정지해 있는 내 파트너란 걸 알게 되었죠. 가능한 만큼만 느끼고 그것에 만족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좋은 경험을 갖는 것에 기뻐하기로 했죠.

여행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나 사람이 있나요?

복잡하고 소매치기 많기로 유명한 이태리 베니스에서 호텔을 구하지 못해 잠깐 길거리에 배낭을 내려놓고 한숨 돌리고 있었는데, 그 순간 옆에 놓아둔 보조가방 하나가 없어진 것을 발견했죠. 용하게도 그것이 우리가 1년간 여행하면서 당한 처음이자 마지막 소매치기 사건이었는데, 다행히 그 안에는 피(!)같은 신라면 두 봉지와 오복간장 한 병이 들어있었습니다. 또한 기억에 남는 장소

라면 영국 북부의 황량한 하이랜드(스코틀랜드 북부)와 스카이섬(Isle of Skye)을 들고 싶어요. 비와 바람과 엉성키로 덮인 황무지와 기묘한 언덕이 끝없이 이어진 그곳은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도 신비로움과 자연에 대한 경이로움이 절로 차오르죠.

여행 후에 달라진 것이 있나요? 혹은, 이번 여행에서의 가장 큰 의미를 찾는다면?

서른 개의 나라에서 삼백 육십번의 일몰을 보고 감탄하면서도 단 한번도 서울의 일몰이 어떠했는지 떠올리지 않았었는데, 귀국하고 얼마 후 해질녘 한강 다리를 건너다 문득 투박한 주황빛의 일몰을 발견하고는 전율을 느꼈던 적이 있어요. 그전에는 소중함을 몰랐던 작은 것들을 이제는 바라보고 인정할 수 있게 되었죠. 늘 소박한 척 하면서도 뒤흔침을 참지 못하고 실수도 용납하지 않고 사람 관계에 늘 불안했던 제가, 이제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고 주변사람에게 마음을 열 수 있게 된 거죠. 사실 이러면서도 나는 좀 더 용감해졌을 것이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영감을 품고 돌아왔을 거라 생각해요. 비록 집 사려고 모은 적금은 날아갔지만, 아주 든든한 저금통장을 가지고 있는 기분이었을까요?(웃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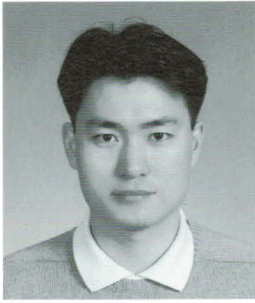
여행 후에 남은 것을 묻는 질문에 ‘여행 중의 고민들이 실시간으로 담긴 홈페이지와 책 한권, 그리고 시아버님이 베트남 난민 같다고 놀리신 까만 피부’라고 유쾌하게 웃으며 이야기하는 설윤성씨를 보면서 남이 쉽사리 시도하지 못하는 것들을 해낸 그녀에게 ‘사색하는 모험가’라는 별명을 붙여 불러주면 어떨까 생각했다.

⇒ 설윤성 씨가 들려주는 세계여행 이야기는 홈페이지(<http://www.dreamtravel.pe.kr>)와 책 ‘철이 없으면 사는게 즐겁다’에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취재 정리 | 권철현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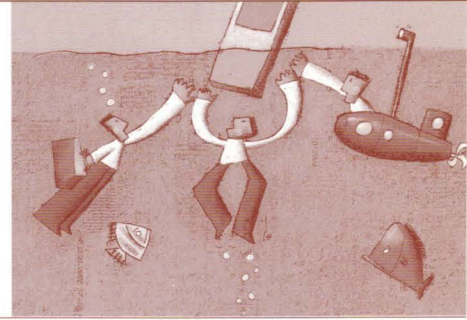
철이 없으면 사는게 즐겁다





나의 색다른 친구

박노진(환경경영/정책(Green) MBA)



학교생활을 하면서 새로 알게 된 친구들, 선후배, 교수님들도 있지만 제게는 색다른 친구가 있습니다. 이 녀석들은 제가 먹이를 주고 물을 갈아주고 수초를 넣어주면서 정성을 다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이지만 제게는 참으로 소중한 친구들입니다. 바로 열대어들이죠.

작년 7월에 연구실 후배의 제안으로 키우게 되었는데 벌써 약 1여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약간은 삭막한 학교생활 속에서 무언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던 참에 시작한 열대어를 키우는 일은 지금까지 저에게 적잖은 마음의 위안을 주고 있습니다. 냄새도 없고 소리도 없는 녀석들은 연구실에서 키우기에 가장 적합했습니다. 처음에는 가까이만 가도 놀라서 어항 속을 이리저리 휘젓고 다니던 녀석들이, 지금은 제가 무엇을 하고 있나 쳐다보고 수면 위까지 올라와서 입을 뻐끔거리며 먹이를 달라고 보채죠. 얼굴을 가까이 대면 모두들 저랑 눈을 마주칩니다. 물고기는 지능이 낮다고들 하는데, 글썄요 제 얼굴은 기억을 하고 있는가 봐요. 전 이 녀석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답답함이 조금은 풀린답니다. 녀석들을 키우는 일은 생각보다 손이 많이 잡니다. 매일 아주 조금씩 먹이를 주어야 하고 약 일주일에 한번씩은 물을 갈아주어야 할 뿐 아니라 이끼가 갑자기 많이 생기거나 수초를 갈아줄 때가 되면 녀석들의 집을 대청소 해주어야 합니다.

녀석들을 키우면서 항상 즐거웠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열대어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다른 종의 열대어를 한 어항에 키웠더니 서로 싸우고 쪼아대는 바람에 모두들 죽어버렸고, 지난 2월 설 연휴 때는 돌봐주지 못했더니 그만 모두 얼어 죽은 적

도 있습니다. 설 연휴에 건물에 난방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때는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새로 구입한 녀석들은 아직까지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키우는 열대어는 카라신과에 속하는 “네온 테트라”로 중남미와 아프리카에서 주로 서식하며, 꼬리는 빨갛고 등과 옆은 파랗고 배는 은색을 띠고 있습니다. 대부분 무리생활을 즐기고 겁이 많은 편이며 육식성입니다. 완전히 다 커도 4cm를 넘지 않습니다. 비교적 아무데서나 잘 자라고 특히 가격이 싸기 때문에 부담 없이 키울 수 있죠. 저는 현재 7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10마리 이상이 되어야 집단적으로 움직일 때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키울 때는 같은 종이라도 조금씩 생김새나 크기가 달라서 이름을 지어줄 수가 있었습니다. 아롱이, 다롱이, 화이트, 실버..... 하지만 지금 이 녀석들은 생김새나 크기가 거의 같아 이름을 지어 줄 수가 없습니다. 졸업하면 집에다 지금보다 더 큰 수족관을 마련하여 키우려고 합니다. 그때는 각각에게 이름을 지어줄 수 있도록 모양과 색깔이 다른 녀석들을 키우려고 합니다. 넓은 바다에서 살아야 할 녀석들이 조그만 어항에 갇혀 지내야만 하니 좀 미안하기도 하지만, 녀석들을 더 잘 관리하고 아껴주는 것으로 보답하려고 합니다. 혹시 언제라도 제 열대어들을 구경하고 싶으신 분들은 연구실로 찾아오세요. 그리고 아직 학교생활하면서 취미를 가지지 못하신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열대어와 같이 조그만 생명체를 친구로 삼는 것을...

원없이 공부한 KAIST-MBA 동문들

작년에 이 곳 대학원에 입학한 신입생도 어느덧 마지막 학기만을 남겨둔 채 마지막 여름방학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한 편에서는 벌써 졸업장을 가슴에 품고, 다른 동기생들보다 먼저 새로운 인생을 찾아 떠나는 이들이 있는데, 2년 4학기 과정을 한 학기 먼저 이수한 조기 졸업생이 그 주인공들이다.



인터넷 IT회사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하다가 입
학한 **문성배 씨(테크노경영MBA)**는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몸
소 느껴보고 싶어서 조기 졸업이라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주변의 옛 친구들이 하나 둘씩 사회에
서 자리를 잡아가는 것을 보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딴 생각”이 안 들고, 또 자
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이룰 수 있는 도전적인 그 무언가
를 위해 조기 졸업의 길을 선택하였다. 조기 졸업을 자신
의 목표로 결정한 다음, 제일 먼저
한 일은 앞으로 남은 1년간의 학업
계획을 수립한 일. 실제로 그 계획
표에 따라서 차질 없이 진행하였
다. 매 학기 시작 전 자신이 관심
있는 과목을 미리 8-9개 정도 선
택해 놓았고, 일부러 가장 학업 부
담이 많은 과목을 5개 골라 수강신
청을 하였다. 가장 어려운 과목들
을 중심으로 학과목을 짠 이유는
가장 강한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
는 자신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였다.



고유상 씨(테크노경영MBA)는 포항공대를 졸업하
고, LG화학에서 과학 진급 바로 직전, 평소 품고 있던 창
업의 꿈을 위해 퇴직 후, 대학원에 입학하였다. 대학원
2년간의 생활은 자신에게 있어서 경영자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는 생각에 대학원에서 보내는 그
어느 한 순간도 소홀히 할 수가 없었다. 경영전략, 마케팅
등 그 동안 직장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중
점적으로 공부해 나갔다. 어떤 사례를 공부하거나, 지식
을 배울 때마다 그냥 받아들이기 보다는 최고경영자의 입
장에 서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다. 봄, 가을의 정규 학
기에는 최대 허용 학점인 15학점을 신청하고, 여름, 겨울
방학 때 열리는 계절 학기에도 최대 학점인 6학점을 신청
하여, 졸업 시까지 모두 80여 학점을 채우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이미 입학 전부터 가지고 있었다. 만약 졸업 학점
이상의 과목을 수강할 수 있었다면, 대학원이 설립된 후

가장 많은 학점을 이수하는 진기록을 세웠을 지도 모른
다. 여수에 있는 부인과 아이들과 떨어져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으며 학업이 워낙 빠빠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집에
는 한 달에 한 번 꼴로 다녀온다. 작년 9월에는 부인이 출
산하여, 가정에 대한 책임과 그리움이 그 어느 때보다 애
뜻하지만,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난 학기에는 장학금을 받
아 타 학생의 존경을 한 몸에 받기도 했다.

한진규 씨(테크노경영MBA)는 공군 장교, 국내 유
명 호텔 마케팅 담당, 패션의류 회
사 창업 등 다양한 사회생활을 경
험하다가 보다 체계적인 경영학 공
부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대학원에
입학을 하였다. 1학년 입학초기부
터 매 학기 최대학점을 신청하여
수강하였고, 방학 때도 휴식 없이
학업에 정진하였다. 학업이 워낙
많기 때문에 평소에도 새벽 2-3시
까지 연구실에 남아 책장을 넘겼
다. 추석, 설 연휴 등 명절 때 4-5
일을 제외하고는 입학 후 지금까지 매일매일 학교에 나
와 공부를 하였다. 한 학기를 더 다닌다면 교환학생제도
를 통해서 해외 경험을 좀 더 쌓고 싶다는 한진규씨는 졸
업을 앞두고, 지난 시간에 대해 후회는 없다고 했다. 학
교 입학 목표가 뚜렷했기 때문에 배우는 것 그 자체가 흥
미 있는 일이기도 했고, 저명한 교수진과 초청인사의 강
의를 듣고, 실력 있는 친구들과 진지한 대화를 할 수 있
는 분위기와 강의실, 기숙사, 학생 식당, 도서관, 연구실,
체력단련실 등 학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
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더욱 학업에 매진할 수 있었다고
한다. 성적도 우수해서 지금까지 모든 학점은 'A' 이상.

자전거를 타고 힘겨운 언덕길을 올라섰을 때의 그 상
쾌함. 그리고, 앞으로 시원하게 내뿜은 내리막 길. 이들
졸업생들의 앞 길에도 이처럼 멋지고 상큼한 미래가 펼
쳐지기를 바란다.

취재 정리 이인팔기자



노 태 석
KT 부산본부 본부장

"기술, 경영, 정책 모두를 공부할 수 있었어요."

여러 교수님들로부터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이 어떤 학생을 선발하고 교육시켜야 하는지를 느끼게 해주고, 학생들에게도 귀감이 되는 자랑스러운 졸업생이라는 평을 들어 왔던 KT 부산본부 본부장 노태석 동문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에 입학하여 공부를 다시 하게 된 계기와 동기는?

현업에 있으면서 시장 환경 변화에 올바르게 대응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연구의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기술과 경영, 정책 등을 모두 공부할 수 있는 곳은 KAIST 뿐이었지요. 실제로 정보통신경영연구실(차동완 교수)에서 석사 졸업 직후, '한미 통신 개방 협상'에 참여했었는데, 학교 공부내용이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석사 이후 '선 국내경쟁 후 대외개방' 등 정부의 규제정책 변화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산업경제분석 연구실(김재철 교수)에 박사과정으로 진학했습니다.

대학원 입학 이전에 대학원 생활에 대해 가졌던 기대와 계획이 있었다면?

낭만적인 학교 생활에 대한 기대보다는 논리 무장과 기술 습득에 대한 기대가 가장 컸습니다. 그리고 석사 동기들의 경우, 10년 정도 나이 차이가 났기 때문에 어린 학생들의 모습이 궁금하기도 했고요.

실제로 경험하신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생활과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처음엔 솔직히 힘들었지만, 연구를 하는 명확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석사는 서울에서, 박사는 대전에서 공부했었는데, 특히 서울의 홍릉캠퍼스는 환경이 정말 좋았어요. 힘들 때면 나와 먼산을 바라보고, 지붕 위의 비둘기와 날아다니는 솔개도 바라보며 지냈습니다. 머리를 식히려고 먼산을 한참 바라보고 있노라면 문득 하늘과 산이 반대로 보이곤 했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책과 책 속의 많은 공식들을 뒤집어 생각해보며, 그 책을 쓴 사람, 많은 공식들 밖에 있는 것들에 대해 생각을 해야지, 책과 공식 속에 갇히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지붕에 앉아 구구거리는 비둘기와 하늘에서 날개를 짹 펴고 정지해

있는 솔개를 바라보면서, 책 속에 갇혀 비둘기처럼 단기적이고 짧은 시야를 갖지 말고, 솔개처럼 높이 그리고 멀리 바라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학교 생활을 통해 영향 받은 것, 입학 이전과 달라진 점은?

공부를 많이 한다는 것은 단순히 책에 있는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쌓는 것이며, 방해물에 직면했을 때에도 창조적 사고를 통해 극복해내는 능력이 생기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논문을 쓰는 과정은 책의 지식을 넘어 그 내용 속에 빈틈을 찾아 이를 밝혀내는 과정이지요. 덕분에 정부와의 정책 협의, 사업자 간의 분쟁, 회사 내부 사업 전략과 의사결정 등의 상황에서도 자신 있게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있는 후배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에서의 경영, 기술, 정책 학문 간의 교류 학습 경험은 사회에서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테크노경영대학원은 이러한 여건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으니, 학생들이 기회가 있을 때에 이를 충분히 활용하라는 당부를 하고 싶습니다.

취재 정리 송재현기자

약력

- 79년 기술고시 합격 · 체신부 입사
- 82년 ~ 한국전기통신공사 입사
- 95년 ~ 한국통신정책협력국장 · 런던 브뤼셀 사무처장 · 사업지원 단장
- 02년 ~ KT부산본부 본부장

학력

- 87년 3월 KAIST 경영학과와 석사과정 입학
- 89년 2월 석사과정 졸업
- 92년 3월 KAIST 경영학과와 박사과정 입학
- 96년 8월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박사과정 졸업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KGSM의 인재들

지난 4월 22일, 정보통신의 날을 기념하여 수여된 국무총리상 수상자 중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출신 졸업생과 재학생이 포함되었다. 유천수(2000년 박사졸업, 기업정보시스템 연구실)씨와 전수환(박사과정, 정보시스템관리 연구실)씨가 그 주인공이다. 두 수상자를 만나보았다.

유천수 박사

interview



수상을 축하 드립니다. 현재 근무하시는 한국 전산원에서 하시는 일과 그 동안의 직장 경험을 말씀해주시겠어요?

큰 상을 받게 되어 너무 영광입니다. 한국 전산원에 오기 전에

는 17년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무기체계 및 전장관리에 요구되는 정보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000년 2월 공공정보화 분야의 핵심 조직인 한국전산원으로 이직하여 조금 낮은 분야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지요. 한국 전산원에서는 지식정보기술단 전자거래연구부 부장으로 있습니다.

지난 국무총리상은 어떤 배경으로 받게 되셨나요?

중소기업 50인 미만의 소기업을 대상으로 e-비즈니스 도입 촉진을 위한 방안으로서 소기업네트워크화 사업을 기획하고 이를 프로젝트화한 것이 직접적인 배경입니다. 저는 이 사업의 전담 관리 기관인 한국 전산원의 책임자 역할이었죠.

추진하신 사업의 현재까지 결과나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금년 1월 1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하여 6월말 현재 68,000여 소기업이 가입하여 활용 중입니다. 2004년까지 50만 기업 가입을 목표로 정부가 지원하고 그 이후에는 시장 자율에 맡기는 것을 원칙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무난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수상하신 소감을 말씀해주신다면?

새로운 직장으로서 이직 한 지 2년여의 짧은 기간에 큰 상을 수상하게 되어 감회가 남다릅니다. '일은 네 것 내 것이 없고 일하는 자의 것'이라는 평범한 격언을 실천하고 이러한 방향으로 함께 노력해 준 부서 연구원들 모두의 노고를 대표하여 받은 것이라는 생각에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전수환 박사과정

interview



축하드립니다. 수상 배경을 말씀해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수상 배경은 크게 「문화정보화 교육에 기여」, 「공공 발전에 기여」, 「문화

정보화 사업 자문」 등 세 가지입니다.

학부(연세대 전산과)때부터 꾸준히 문화·예술계에 애착을 가지고 이 분야 발전을 위해 지난 수년간 조금씩 노력한 것이 인정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수년 전부터 문화예술 정보화에 대해 다양한 강의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강의를 맡고 계신지요?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1997년 문화예술진흥원 연수과정에서 정보화 교육 강의를 시작한 것이고, 1998년부터는 다움아카데미 문화예술 정보화 교육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부터는 추계예술경영대학원에서 문화정보화 교육 강의를 맡고 있죠. 강의는 제게도 매우 좋은 경험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의 공로를 인정 받으셨으니 감회가 새롭을 것 같은데요, 수상 소감을 말씀해주신다면?

큰 상을 받게 되어 영광입니다. 정보 시스템의 활용 영역을 문화 예술 분야로 넓힌 공로로 상을 받게 되었는데요, 정보 시스템의 활용 비전이나 기술은 김영걸 교수님을 비롯한 여러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님들로부터 배운 것입니다. 대학원 교수님들께 이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취재 정리 | 김승하 기자

Dynamic Korea

"America is not a country, it is an idea."

"France is not a country, it is an image."

미국의 유력 광고 대행사 애널리스트의 말이다. 미국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 진취성, 기회, 풍요, 혁신... 보통은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마련이다. 코카콜라, 미키마우스, 맥도널드... 다국적 기업의 제품을 소비하는 세계의 소비자들은 이 제품에 녹아 있는 미국의 국가적 이념과 상징을 같이 소비한다. 이들에게 미국의 인구며 1인당 국민소득 같은 구체적 수치들은 중요하지 않다. 그저 이념과 이미지로 그들의 관념 속에 존재하는 미국으로서 이미 충분하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교육현실에 절망하여 미국 이민을 꿈꾸지만 평생의 삶의 터를 옮기는 중요한 결정에도 국가 이미지는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막상 가 보면 한국의 학교보다 IT 설비도 형편없고 교육의 질도 훨씬 더 떨어지는 공립 학교들이 부지기수이지만 미국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 국가이미지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에게 이미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 이미지에 휩쓸려 이민을 결정한 사람일수록 쉽게 실망하고 결국 역 이민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음은 당연할 것이다.

화장품, 패션사치품, 예술과 자유... 프랑스 제품에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국가이미지 역시 마찬가지다. 프랑스의 실체가 어떤지는 상관없다. TGV가 알려지기까지 프랑스를 세계적인 과학기술 대국으로 알고 있는 한국인은 드물었을 것이다. 라팔 전투기를 팔러 온 프랑스가 머리 속의 이미지와 잘 맞지 않아 은근히 프랑스 전투기의 기술수준을 깎보는 중년들도 꽤 있었을 것이다. 국가 이미지는 그만큼 중요하다.

해외여행을 통해 설사 그 나라를 직접 다녀왔다 해도 별로 달라질 것은 없다. 이미 긍정적 선입견이 형성되고 난 뒤에는 온통 즐겁고 낙관적인 모습만 보이게 마련이다. 난생 처음 한국을 1주일간 여행한 외국인이 마치 한국을 다 아는 것처럼 행세하고 다닌다면 누구라도 코웃음을 칠 수밖에 없다.

해외여행에 나선 한국인들은 일본인 아니냐는 질문을

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지만 생각해 보면 우리라고 뚜렷한 국가이미지를 가진 나라를 몇 개나 떠올릴 수 있을까? 보통 사람들이라면 기껏해야 10개 내외에 불과할 것이다. 그렇다면 한 나라가 뚜렷한 국가이미지로서 세계 시민에게 기억된다는 것은 소수의 경제문화 대국만이 누리는 특권인 셈이다.

월드컵으로 우리가 얻어낸 국가이미지는 무엇일까? 붉은 색, 수백만의 젊은이, 첨단 IT기술... 요모조모 생각해 보았는데 이 모든 이미지를 아우르는 한 단어는 바로 <다이나믹 코리아>라는 생각이다. 발전되고 안정되어 있지만 뭔가 정체되고 변화의 정점에 이른 서구와 달리 비록 불안한 구석은 있지만 끊임없이 변화하고 역동하는 젊은 나라. 한국이 이번에 외국인에게 선보인 이미지는 이런 것들 아닐까?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서구와 일본은 이미 변화의 끝자락에 서 있는 나라다. 최근 유럽의 우경화 그리고 일본의 경제적 침체는 이런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증거들이다. 서방 국가들이 가진 또 하나의 딜레마는 인구가 급속하게 노령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 이상의 변화와 자극보다 편안한 노후가 필요한 이들이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기 시작하면 사회와 경제의 역동성 역시 기대할 수 없다.

이에 비하면 급속하게 인구의 과반수 이상을 젊히기 시작한 우리의 20~30대는 사회의 커다란 자산인 셈이다. 길거리 응원을 주도한 <붉은 악마>의 태반이 바로 이 연령대였고 이들의 역동적인 응원열기는 외신을 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원했든 원치 않았든 우리의 국가이미지는 이미 <다이나믹 코리아>로 굳어졌다. 이미 노쇠한 서방에 비해 상대적 우위를 지닌 긍정적 이미지다. 이제는 정치권이든 기업이든 수 십조원을 주고도 얻지 못할 한국의 국가이미지에 어떻게 편승해야 할지 고민해야 할 때이다.

Korea is not a country, it is an idea.



민 경 진
테크노경영 MBA

AIM:

최고정보경영자과정

AIM 제16기 2차 배우자 정보화 교육 및 동반특강



AIM 배우자 교육

지난 4월 17일, 최고정보경영자과정 제16기 동문들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 및 만찬이 진행되었다. 배우자 특강은 컴퓨터실습(인터넷 및 PC 통신실습 등)과 한국 디자인진흥원 정경원 원장의 "디지털시대의 디자인경영과 진흥"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AIM 제1회 홈커밍데이 행사

7월 3일, 전 서울대병원장 한만청 교수의 특강이 함께 진행된 이번 첫 홈커밍데이 행사는 부부동반으로 이루어졌다. 94년 이래 600여 동문을 배출하기까지 초창기 AIM 창회의 기반조성에 애써준 전임 총동창회장단에게 감사패 수여가 있었으며, 제일 많이 참석한 기수에게는 깜짝 선물이 준비되어 즐거움을 선사하기도 하였다.

AVM:

최고벤처경영자과정

美 Lee Technology Consulting의 Ike Lee 사장 AVM 프로그램 자문위원으로 위촉

테크노경영대학원은 미국 Lee Technology Consulting의 Ike Lee 사장을 AVM프로그램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5월 16일 감사패를 전달했다. Ike Lee 사장은 해외 연수시 강사진 섭외, 현지 벤처기업가들과의 면담 주선 등 AVM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많은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AVM과정 제8기 해외연수

제8기 해외연수가 5월 18일에서 25일까지 21여명이 참

여한 가운데 1주일 동안 실리콘밸리와 시애틀에서 진행되었다. '미국 벤처의 이해와 미국시장 진출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 이번 연수에서는 미국 현지에서 활동중인 벤처 전문가들의 초청 특강을 비롯해, 스탠포드대학과 벤처기업을 방문하여 현지 벤처기업가들과의 만남을 가졌다.

ATM:

최고 텔레콤 경영자 과정

ATM 제1기 Workshop

제1기 최고텔레콤경영자과정의 제2차 워크샵이 보광 워닉스파크에서 6월 21-22일에 개최되었다. 이번 워크샵에서는 한 학기의 과정 기간 동안 준비해 온 전략연구보고서의 발표와 세미나가 진행되었다.

ATM 제1기 수료식

지난 3월에 처음 개설된 최고텔레콤경영자과정의 제1기 수료식이 지난 6월 27일, 테크노경영대학원 수펙스경영관에서 열렸다. 3월 14일에서 6월 22일까지의 총 15주 간의 교육일정으로 최근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실습, 시연 등을 통한 실용성 있는 교육 내용으로 구성된 본 과정은 제1기 수강생 전원이 수료한 가운데 성공리에 첫 과정을 마쳤다.

CKO:

최고지식경영자 과정



제8기 CKO과정 수료식

제8기 CKO과정 수료식

제8기 매경-KAIST CKO과정 수료식이 지난 6월 13일 테크노경영대학원 수펙스경영관에서 열렸다. 이날 수료식에서는 김외곤(삼성물산 건설부문 부사장) 동문이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하였으며, 신호철(한보에너지 사장) 동문과 이정일(CJ 드림소프트 본부장) 동문이 각각 공로패를 받았다.

CKO과정 홈커밍데이

지난 6월 27일, 테크노경영대학원 수펙스경영관에서는 CKO 1기부터 8기까지 모든 동문들을 대상으로 홈커밍데이 행사가 열렸다. 이번 행사에서는 테크노경영대학원 조연주 교수의 "전략적 인력개발"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이 있었으며, 3기 수료생인 박준영 전무(SBS, 시인)가 '오~ 필승 코리아'란 주제의 월드컵 축시를 선보이기도 했다.

AIC: 최고사내컨설턴트 과정



AIC 제2기 수료식

AIC 제2기 수료식

지난 6월 26일, 최고사내컨설턴트 제2기생들의 수료식이 테크노경영대학원 수펙스경영관에서 열렸다. 지난 3월 5일부터 3개월에 걸쳐 진행된 이번 과정의 수료자는 총 47명이다. 최신 경영이론과 동향을 주제로 매주 화요일 총 43 강좌로 진행된 본 과정은 컨설팅 방법론과 현장 경험 등의 실제 사례를 통해 학습하게 함으로써, 미래의 CEO(Pre-CEO)로 준비되고 있는 컨설턴트의 필수적인 능력을 전수하였다.

HMC: 현대자동차 그룹 글로벌 전문가과정

HMC과정 제2차 워크샵

지난 3월 22일부터 23일까지, KAIST 대전 캠퍼스에서 HMC과정 제2차 워크샵이 개최되었다. 과정생들은 대전 KAIST 인공위성연구센터를 견학하고, 생산 및 기술경영 과정의 분야별 특강을 통하여 산업계의 발전방향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각 분야 간 연계에 대한 내용을 학습하는 자리를 가졌다.

HMC과정 특강

지난 6월 14일, HMC과정은 테크노경영대학원 수펙스경영관 301호에서 현대자동차 생산개발총괄부 본부장인 신현오 전무의 특강을 개최하였다. 이번 특강은 현대자동차그룹이 글로벌 경영체제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영관리능력 개발의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취재 정리 | 권철현 기자

KAIST-CHB 금융경영자과정 개설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은 조흥은행과 함께 <KAIST-CHB 금융경영자과정>을 신설하고, 6월 25일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수펙스경영관에서 1기 입학식을 가졌다.

<KAIST-CHB 금융경영자과정>은 홍석주 조흥은행장이 취임 초 밝힌 "경쟁력의 핵심은 사람"이라는 경영철학을 실천하기 위해 CHB 인재사관학교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금년에 처음 실시되는 것이다.

은행의 경영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본부핵심부서장 및 영업점장 등 40명으로 구성된 1기 교육생들은 내년 2월25일까지 8개월간 계량경영, 경영전략, 리스크 관리 등 13개 교과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테크노경영대학원 커플이야기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에 입학하여 처음에는 선후배 또는 동기로 만났다가 결국 평생을 같이 할 동반자가 된 이들. 바로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이 맺어준 'KGSM 커플들'이다. 본 코너에서는 KGSM 커플로 작년 8월과 9월 그리고 11월에 각각 결혼에 골인한 Green MBA 커플 명재규-송미경씨, MIS MBA 커플 박진형-김현정씨, 경영공학 커플 이상진-이진씨를 소개하고자 한다.

<환경(Green) MBA> 명재규-송미경 커플

현재 명재규씨는 LG 환경 안전연구원 환경 정책팀에서, 송미경씨는 한국신용정보 평가사업본부 중화학 평가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들의 운명적인 만남은 2000년도에 입학한 명재규씨가 1년 선배인 송미경씨가 있던 연구실에 배정 받으면서 시작되었다. 늦게까지 연구실에서 함께 공부하며 종종 몇몇 동료들과 어울리는 자리를 같이 하면서 이들은 점점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연애도 하면서 공부도 열심히, 동아리활동도 열심히 하셔서 테크노경영대학원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모두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공부에만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주위에 괜찮은 사람 있나 잘 살펴 보세요. 단, 시간은 알뜰히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졸업할 때 학업과 사랑에서 모두 좋은 결과를 얻을 거라 생각합니다.”



<경영공학전공> 이상진-이진 커플

이상진씨는 현재 아더앤더슨 리스크 매니지먼트 그룹에서 선임 컨설턴트로, 이진씨는 한국수출입은행 자금부 외화운용팀에서 딜러로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서강대학교 동문회에서 만나 대학원 졸업 후에 더욱 가까워진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름과 외모가 비슷한 탓에 자타가 친남매라 할 정도로 가까운 선후배 사이로 지내다가 이상진씨의 졸업 후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이상진-이진씨는 학교에서 커플이 되는 것에 대해 특별히 더 좋을 것도 더 나쁠 것도 없다면서, 다만 같은 공간에서의 추억을 공유한다는 것이 장점일 수 있다고 했다. “남편이 아트리움에서 피아노를 쳐주었는데 지금 생각해봐도 그 때가 참 멋졌어요. 그런 모습을 간직할 수 있다는 게 좋은 점이죠”라고 이진씨는 말했다. “연애도 좋지만 대학원은 공부하는 곳이니 그 첫째 목적에 맞게 원없이 공부하세요. 직장생활 하면서 체계적으로 공부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거든요. 평생 연구자가 될 수 있도록 관심분야에 기초를 닦는 것이 큰 재산이 될 겁니다.”



<경영정보(MIS) MBA> 박진형-김현정 커플

현재 박진형씨는 HP(Hewlett Packard)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김현정씨는 IDC(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에서 e비즈니스와 통신 분야 애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일명 'DB 커플'이었다. MIS MBA 99학번 동기로서 필수교과목인 데이터베이스 과목 팀 프로젝트를 같이 하면서 연구실에서 매일 밤샘작업을 하다 보니



자연스레 가까워지게 된 것이다. 박진형-김현정씨는 캠퍼스 커플에 대해 서로의 선후배, 친한 이들을 공유함으로써 상대방을 더 깊이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점이 좋다고 하였다. “좋은 인연은 학교 생활 뿐 아니라 인생의 훌륭한 자산이라고 생각해요. 전공에 상관없이 여러 학우들과 적극적으로 휴먼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자신의 자산을 풍요롭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이들이 생각하는 캠퍼스 커플의 단점은 무엇일까? 이들은 서로의 생활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서로의 사생활을 간섭할 수 있다는 점, 캠퍼스 커플이다 보니 주위 사람들의 주목을 쉽게 받고, 주로 학교에서 만나다 보니 다른 장소에서의 추억을 거의 만들지 못했다는 점 등을 단점으로 꼽았다. 그러나 이들은 인터뷰에서 한결같이 말했다. 대학원 내에서 함께 공부한다는 그 자체가 좋았다고.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처럼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공부하며 지내는 곳에서는 이러한 것이 더욱 큰 장점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바로 곁에서 힘이 되어 주고 부족한 부분들은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시간을 내어 인터뷰에 응해준 이들에게 감사하며, 이들 뿐 아니라 지면에 소개하지 못한 모든 KGSM 커플들에게도 행복이 가득 넘치기를 바란다.

취재 정리 | 김문용 기자



2002년 여름의 테크노인

지난 7월 3일, 테크노경영대학원 제4회 여름의 테크노인으로 이인팔씨가 선정되었다.

이인팔씨는 현재 테크노경영 MBA 2년차로 평소 대학원의 역동적 이미지에 맞게 대학원 홍보와 행사에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순수한 학교사랑의 마음과 봉사의 발로로 MBA입학게시판에도 자발적인 답변을 수시로 올려, 테크노경영대학원에 관심을 가지는 일반인과 입시희망자들에게 좋은 조언자이자 선배의 역할을 하였다. Q&A 조회가 400-500건에 이르는 등 친절하고 감동을 주는 입학상담자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평소 겸손하고, 성실하며, 주인의식을 가지고 학교의 대내외적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한 그를 만나 테크노인 수상 소감을 들어보았다.



이 인 팔
테크노경영MBA



이인팔씨 축하드립니다. 테크노인이 되신 소감은?

저보다 더 열심히 활약한 사람도 많은데 저에게 이런 커다란 상을 주셔서 매우 부끄럽습니다. 제가 대표로 받게 된 것으로 생각하고, 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모든 학생들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앞으로 보다 열심히 노력해서, 저에게 준 상이 헛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학교생활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생기자 등 활발한 학교 활동을 하게 된 계기는?

학교에 더욱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학교 시설을 이용하고, 강의를 듣는 피동적인 수혜자의 입장이었다면 프론티어 기자 등 활동을 통해서 이 학교의 좋은 모습을 함께 공유하고, 다른 사람에게 알려줌으로써 우리 학교가 보다

나은 학교가 되도록 일조하는데 가장 큰 보람과 기쁨을 느낍니다.

졸업 이후의 계획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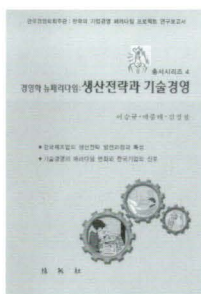
일단 좀 더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일이면 좋겠습니다. 분야는 마케팅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선택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그곳에는 '사람의 냄새'를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기회가 닿는 대로 저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살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기에 올 수 있었던 것이 저 혼자 '힘'만은 아니었듯이, 이제는 졸업을 하고 한 사람의 사회인으로 섰을 때는 그 고마움에 보답을 해야 겠죠.

냄새는 가까이 할수록 배인다고 했는가? 인터뷰내내 이인팔씨에게서도 사람의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취재 정리 | 김정배 기자

신 · 간 · 소 · 개

이승규/배종태/김정섭 교수 "경영학 뉴패러다임 : 생산전략과 기술경영" 출간



"경영학 뉴패러다임 : 생산전략과 기술경영"은 한국의 기업경영이 어떤 이념과 원리를 따라 발전해왔는지를 밝혀내기 위해 한국경영학회가 99년부터 추진중인 '뉴패러다임 프로젝트'의 네번째 연구결과로 기술경영과 생산경영 분야를 다루고 있다.

본 저서는 한국 제조업의 기술경영/생산경영의 발전과정을 설명하는 특징을 일반이론과 비교하고, 선발기업의 행동을 모방하는 데서 벗어나 독자적 발전방향을 찾아가는 한국 기업의 새로운 기술 및 생산경영 패러다임을 정리하는 것을 연구문제로 삼았다. 이번 연구는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진 3명의 책임하에 기술경영과 생산경영의 두 가지 분야로 나뉘어 진행됐다. 배종태 교수가 책임을 맡은 기술경영 연구팀은 기초연구에서 제품기술까지 기술경영 활동을 중심으로 다루었고, 이승규 교수와 김정섭 교수가 맡은 생산경영 연구팀은 사업부의 제품개발활동에서 공급사슬까지의 생산경영 프로세스를 다뤘다.